

2019 년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인문학 강좌: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시리즈 강좌(13)

주제: 인터넷 과학 기술의 발전 추세

제 13 회 One 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관무인터넷회사(關貿網路股份有限公司) 허건룡(許建隆) 이사장을 주강사로 모셨다. 허 이사장은 국립타이베이대학 경영학과 박사이며 국립기남국제대학(國立暨南國際大學) 등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셨다. 또한 중화민국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 상무이사, 중화민국관세협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정계, 재계, 학계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허 이사장은 직장에서 여러 다양한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는 제 15 회 국가브랜드 옥산(玉山)상, 제 25 회 국가 우수품질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걸출한 기업가이다. 수상 경력은 최상의 광고 효과이므로 학생들도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각종 수상 기회를 쟁취하도록 독려하셨다

우선 현재 근무 중인 관무인터넷회사를 소개하셨다. 관무회사는 30 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570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업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 발전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금 신고 시스템, 통관무역, e-비즈니스, 식품의약 안전, 정보통신 안전망 서비스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기타 산업과 협력 중에 있다. 관무

인터넷의 경쟁력은 정보통신, 물류, 판매, 무역 분야의 수요를 장악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4 차산업 시대에 대비하여 AI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영역 확장 및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에 앞장서고 있다. 회사의 중요한 주제는 기초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영역을 넓혀가는 'ABCDE+I'개념, 즉 A(AI), B(Block chain), C(Cloud), D(Data), E(Ecosystem), +I(IoT)이다. 기업이 새 시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Fin Tech),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더욱 민첩하고 완벽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시대이다.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멀지 않은 미래에 절반 이상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는 '사선(slash)개념'을 지니고 언어 실력과 정보 관련 전문지식을 동시에 갖추는 등 다방면으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허 이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가 발달한 오늘날 정보 보안 사건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프로그램 엔지니어, 정보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으로 취업 후에는 보수와 개인의 능력이 비례하게 될 것이므로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먼저 실력을 키워야 한다. 허 이사장은 학생들이 먼저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에서 핵심능력을 다진 후 자신의

전문 범위 내에서 제 2 또는 제 3 의 특기를 개발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후 시장의 수요 방향을 내다보고 신속하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하도록 당부하셨다.

허 이사장은 금번 강연에서 관무회사가 현재 어느 영역에서 실제로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關翼가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등 영역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내고 각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의 생활 및 소비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기업이나 개인 모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마땅히 순응해야 한다. 그러나 인류와 AI 는 다르며 인류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므로 학생들은 AI 로는 대체불가능한 기술과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학생들은 두 가지 이상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정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사고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 이사장께서는 결단과 추진력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학생들을 독려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낡고 진부한 것을 창조와 혁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이현주(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